



2026. 3. 4 (수)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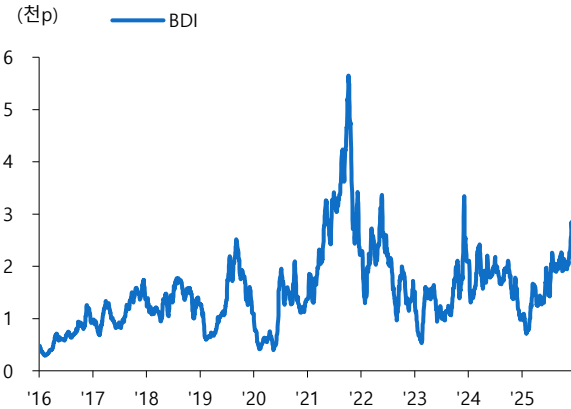
신조선가 182.1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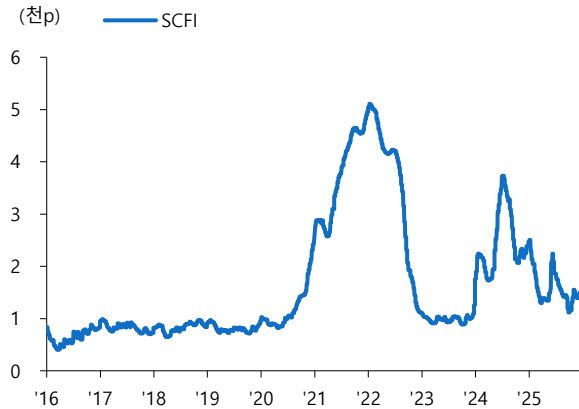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2.13 기준) 482.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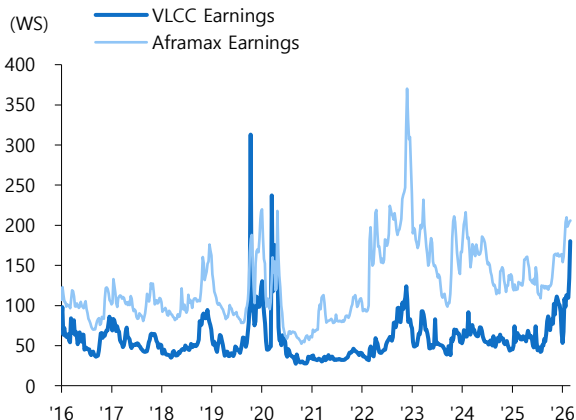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187.0p (+4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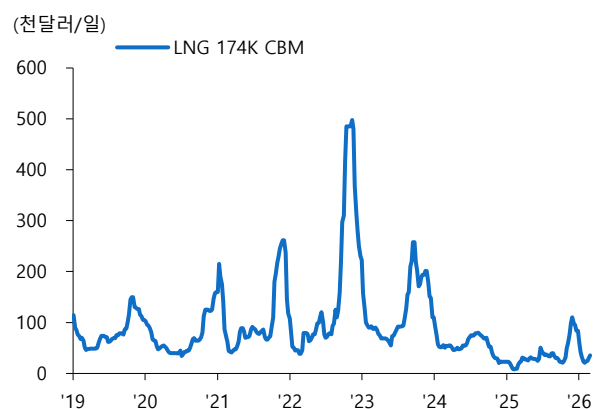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333.1p (+81.6p WoW)



VLCC Spot Rate 180.1WS (+45.9p WoW)



LNG Spot 운임 35.5천달러 (+5.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필리핀, 비원전·조선·우주·광물 등 민간 협력 확대...내일 MOU 7건 체결 (뉴시스)

<https://zrr.kr/oBlxd4>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원전·조선·식품·의료기기 등 총 7건의 MOU가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 발전회사 메랄코와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사업·재무 모델 공동 개발 및 인력 양성 협력을 추진하고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과 조선 인력 양성 협력에 나선다고 전해짐. 또한 소비재·의료·우주·핵심광물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며 양국 기업 간 공급망 강화와 신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알려짐.

“캐나다, 60조 잠수함 프로젝트 한국과 독일에 분할발주 검토” (조선비즈)

<https://zrr.kr/ququ5g>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에 6척씩 분할 발주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됨. 독일의 Type 212CD 6척은 대서양 연안에, 한화오션의 KSS-III 배치-II 6척은 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계약 분할 시 자동차 산업 투자 등 산업적 이익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전해짐. 해당 사업은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Shipowners demanding six-figure LNG carrier rates in overnight 'structural shift' for market (TradeWinds)

<https://zrr.kr/HoNpwd>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LNG 공급 약 8,500만톤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대서양 LNG 운반선 현물 운임이 하루 16만달러 수준까지 급등하고 시장 심리가 강세로 전환됐다고 보도됨. 카타르산 LNG 약 8,000만톤이 오프라인 상태에 놓이며 톤마일 증가와 단기 선복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용선자들은 고운임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짐. 유럽 TTF 가스 가격이 약 50% 급등하고 재고가 24% 수준에 머문 가운데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산 화물을 둘러싼 유럽과 아시아 간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알려짐.

Strait of Hormuz shut. Iran will 'set fire to anyone who tries to pass through' (TradeWinds)

<https://zrr.kr/v4AaK6>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고 주장하며 통과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고 전쟁위험 보험사들도 해당 항로 보장을 중단하는 등 해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됨. 이란은 중동 송유관 공격과 유가 200달러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지를 겨냥한 공습과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고 전해짐. 해상 교란이 지속될 경우 천연가스 가격이 추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짐.

US LNG player hoping to greenlight next expansion phase 'in coming weeks' (Upstream)

<https://zrr.kr/GjpEhY>

Venture Global이 Calcasieu Pass 2 2단계에서 연 500만 톤 규모의 판매·구매 계약을 확보하고 수주 내 프로젝트 금융 조달과 최종 투자결정을 완료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CP2 전체 사업비는 최대 335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첫 LNG 생산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고 4분기 순이익 11억 달러, 매출 44억 달러로 실적도 큰 폭 개선됐다고 전해짐. 회사는 CP2와 Plaquemines 확장 및 Calcasieu Pass 3 개발까지 추진하며 모든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연 18,340만 톤 규모의 수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짐.

Venture Global says BP seeking \$6 billion in LNG arbitration case (Upstream)

<https://zrr.kr/c7wIud>

BP가 Calcasieu Pass LNG 터미널 지연과 관련한 중재에서 Venture Global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10억 달러 예상치에서 37억~6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했다고 보도됨. Venture Global은 계약상 전액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배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심리는 2026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전해짐. Shell, Repsol 등 다른 장기 고객들과의 중재도 진행 중이며 일부 부는 수십억 달러를 청구한 가운데 향후 분기 내 일부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도 언급됐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